

2018년 3월 9일

emerics@kiep.go.kr

시리아 내전 사태 악화...민간인 피해 확산



©REUTERS

시리아 정부가 수도 인근에 위치한 반정부군의 마지막 근거지를 포위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.

- 반정부군이 장악한 동구타 지역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포위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,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.
 - 약 39만 명의 민간인이 여전히 동구타 지역에 갇혀 있으며, 정부군이 주민들의 피난을 불허하고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차단함에 따라 600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함.
 - 국경없는 의사회는 “계속되는 폭격과 공습으로 동구타 지역의 병원과 의료기관이 파괴되어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,”이라고 밝힘.
 - 동구타 지역의 5세 미만 아동들 중 11.9%가 영양실조 상태이며, 식량 가격 역시 시리아 다른 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짐.
- 시리아 정부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동구타 지역 탈환을 위해 2013년부터 공세를 펼쳐 옴.
 -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바로 동쪽에 맞닿아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구타는 수도에 인접한 지역 중 유일하게 남은 반정부 세력의 근거지로, 2013년 이후 시리아 정부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한 공세를 펼쳐 왔음.
 -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25일 동구타 지역에 염소가스 공격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, 화학무기금지기구(OPCW)는 이에 대해 조사하기로 발표함.
 - 2013년 8월, 동구타 지역에 대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23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음.

시리아의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계속됨.

- 국제 사회는 시리아 정부군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행위를 비난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섬.
 - 지난 2월 24일,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전역에서 30일간의 휴전과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구하는 2401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.
 - 지난 2월 26일, 러시아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하고 매일 5시간씩의 휴전할 것을 선언함.
 - 지난 3월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, 메이 영국 총리,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은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휴전 약속 준수를 촉구함.
 - 같은 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“이란이 시리아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.”을 요청함.
-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러시아의 휴전 선언 직후에도 시리아 정부군은 동구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나가 동구타 지역의 약 25%를 점령함.
 -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영TV 기자회견에서 동구타 지역의 작전을 “테러와의 전쟁”이라고 정당화하며 동구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.
 - 지난 3월 5일 UN과 국제적십자사가 공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동구타 지역에 식량 및 의약품을 제공하는 동안에도 시리아 정부군은 공습을 멈추지 않음.
 - UN 구호 요원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구호물품 중 일부를 압수했다고 전함. **EMERiCs**

참고자료

BBC, Syria war: Residents flee Eastern Ghouta bombardment, 2018. 03. 04
 Irin News, Understanding Eastern Ghouta in Syria, 2018. 02. 23
 Médecins Sans Frontières, Syria: Doctors and nurses collapsing as medical response in East Ghouta reaches its limits, 2018. 02. 24
 Reuters, Exclusive: Chemical weapons watchdog investigates Ghouta attacks – sources, 2018. 02. 27
 Reuters, Assad vows to press Ghouta assault, as civilians flee government advances, 2018. 03. 04
 The Irish Times, Syria Q&A: Conflicts in eastern Ghouta and Afrin explained, 2018. 02. 22
 The Washington Post, U.N. convoy begins aid distribution in Syria’s besieged Ghouta area amid shelling, 2018. 03. 05

(자료정리: EMERiCs, 자료감수: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)